2025년 10월 2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코스피 4,000pt 문턱에서 마주한 슈퍼위크

한국 증시는 1) 10월 FOMC, 2)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APEC 정치 이벤트, 3) MS, 애플, 메타, 알파벳 등 미국 M7 실적, 4)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기업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코스피 4,000pt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850~4,050pt).

현재 코스피는 3,940pt를 상회하면서 상징적인 레벨인 4,000pt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60p만 상승하면 되는 만큼(상승률로는 +1.5%), 4,000pt 진입은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보임. 다만,10월 이후 코스피가 16% 넘는 역대급 폭등세를 연출한 데에는 반도체 등 주도주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국내 증시 특성 상 실제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셀온 물량이 출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주가 노이즈를 만들어낼 소지.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월 FOMC, 주요국 정상회담, 미국 M7 실적도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주보다 상기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차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 될 것으로 예상.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1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지역은행 부실사태 진정,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등 대외 변수 안정화된 가운데 우상향 흐름 지속.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코스닥 대비 코스피 우위 흐름 지속(KOSPI +5.14%, KOSDAQ +2.74%)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지역은행 부실 사태 진정 속 대외 변수 안정화된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 급등세로 출발. 특히, 최근 코스피의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증시 거래대금 확대로 향후 실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증권 업종 높은 상승률 기록. 그 외에도 미중 무역갈등 완화 속 자동차 등 관세 피해주도 양호한 흐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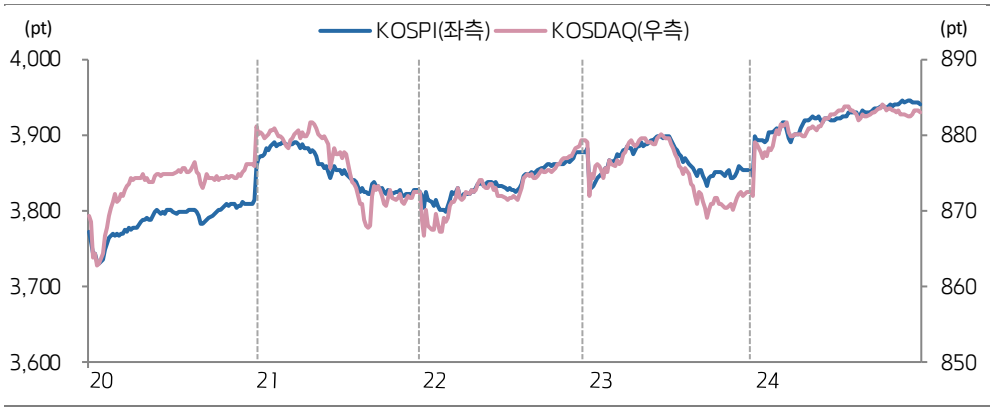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미중 갈등 우려 재차 촉발. 그 외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급락하며 미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일시에 위축되기도 하였음. 다만, 주 후반 백악관이 30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무역 갈등 불확실성을 완화. 또한, AI 수요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인텔 주가 급등 속 AI 모멘텀 재확인.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대 우위 흐름 지속. 코스피는 PBR 1.3배선(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인 3,900pt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 다만,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지속 상향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불확실성 완화, 소외주 반등, 풍부한 유동성 여건에 힘입어 주 마지막 거래일 3,900pt를 돌파하며 재차 신고가 경신.

업종별로 운송장비/부품(+10.01%), 건설(+8.64%), 화학(+8.59%), 증권(+7.32%), 제조(+6.16%))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음식료/담배(-1.18%), 통신(-0.36%), IT 서비스(-0.15%), 비금속(+0.12%), 운송/창고(+0.4%)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2,216억원)은 제조(+4,875억원), 운송장비/부품(+4,272억원), 화학(+2,982억원), 전기/전자(+2,883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4조 313억원)은 KOSPI(+40,313억원), 제조(+36,924억원), 전기/전자(+26,783억원), 금융(+5,310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0월 27일	월	미국	내구재 주문 (MoM, 잠정치)	9월	-0.1%	-2.7%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10월	-	-8.7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10월	-	110.1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9월	-	87.7
		실적	**한화오션, POSCO홀딩스**			
10월 28일	화	한국	**경제성장률 (YoY, 잠정치)**	3분기	1.4%	0.6%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3분기	0.9%	0.7%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	10월	93.8	94.2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10월	-	-17
		실적	**유나이티드헬스케어그룹, 노바티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10월 29일	수	회의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0.50%	0.50%
		실적	**비자, 캐터필러**			
			SK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10월 30일	목	미국	**경제성장률 (잠정치, QoQ)**	3분기	3.0%	3.8%
		유로존	경제성장률 (YoY, 잠정치)	3분기	-	1.5%
		회의	**FOMC 금리결정**	10월	3.75-4.00%	4.00-4.25%
			ECB 통화정책회의	10월	2.15%	2.15%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일라이릴리**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KB 금융,			
			현대모비스			
10월 31일	금	미국	**PCE 물가지수 (MoM)**	9월	-	0.3%
			PCE 근원 물가지수 (MoM)	9월	0.2%	0.2%
			PCE 물가지수 (YoY)	9월	-	2.7%
			PCE 근원 물가지수 (YoY)	9월	-	2.9%
			개인 소득 (MoM)	9월	0.4%	0.4%
			개인소비지출 (MoM)	9월	0.4%	0.6%
		실적	**애플, 아마존, 엑슨모빌, 애브비, 셰브론**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10월 FOMC, 2)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APEC 정치 이벤트, 3) MS, 애플, 메타, 알파벳 등 미국 M7 실적, 4)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기업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코스피 4,000pt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850~4,050pt).

24일(금) 미국 증시는 9월 인플레이션 둔화, 10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하향(예비치 55.0 -〉 확정치 53.6) 등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알파벳(+2.7%)의 대규모 클라우드 투자(엔트로픽과 협업을 통해 100만 TPU 사용) 등에 따른 AI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다우 +1.0%, S&P500 +0.7%, 나스닥 +1.2%)

이번주부터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FOMC, APEC 회의, 실적시즌 등 주요 대형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치러야 함. 그 과정에서 일간 단위로 주가 급등락의 정도가 지난주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

매크로 측면에서는 10월 FOMC가 메인 이벤트. 9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각각 3.0%(YoY, vs 컨센 3.1%), 3.0%(YoY, vs 컨센 3.1%)로 우려만큼 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크지 않았던 만큼, 10월 FOMC에서 연준의 25bp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Fed Watch 상 10월 인하 확률 98%). 따라서 이번 10월 FOMC에서는 금리인하 여부보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 최근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QT(양적긴축) 종료가 공식화 될 지, 고용 시장의 하방위험에 여전히 주력하며 12월 FOMC에서도 추가 인하를 시사할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정치 측면에서는 APEC 회의(10월 27일~11월 1일)에서 미국, 중국, 한국 등 각국 정상들의 회담 결과가 주중 증시, 환율에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 간 정상회담(30일)은 10월 이후 주식시장에 노이즈와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과 직결된 사안. 현재 희토류(중국), 대두(미국) 등 양국 주력 품목 수출 통제를 놓고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함. 다만, 25일 트럼프가 "양국간 양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큰 틀 안에서 부분적인 타협점(수출 통제 유예, 추가 관세 인상 재검토 등)을 도출할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

한국도 미국과 정상회담(29일)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 최근 1,44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달러/원 환율 급등, 자동차 업종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개입된 측면이 있음. 여전히 직접 현금 투자 규모(미국 8년간 250억달러 연간 분납 요구 vs 한국 150억달러 분납 요구 등)를 놓고 양국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국내 정부 역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은 빅딜 보다는 스몰딜(일부 MOU 체결 등)에 그칠 가능성 상존. 그 과정에서 환율, 관세 피해주들이 또 한차례 변동성에서 노출될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은 실적시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이번주 예정된 주도주들의 실적은 이들 개별 주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 미국에서는 30일(목)~31일(금) 양일간에 걸쳐 MS,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등 M7주들의 실적을 한꺼번에 치를 예정. 이번 3분기 실적시즌도 S&P493 기업들보다 M7 기업들의 실적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미 높아진 시장의 실적 기대치를 실제 M7 실적이 얼마나 충족시켜주는 지가 중요. 또 수익성 논란, 버블 우려 등 AI주의 비관론도 공존하고 있음을 감

안 시, AI 투자 관련 CAPEX 가이던스 변화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며,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현재 코스피는 3,940pt를 상회하면서 상징적인 레벨인 4,000pt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60p만 상승하면 되는 만큼(상승률로는 +1.5%), 4,000pt 진입은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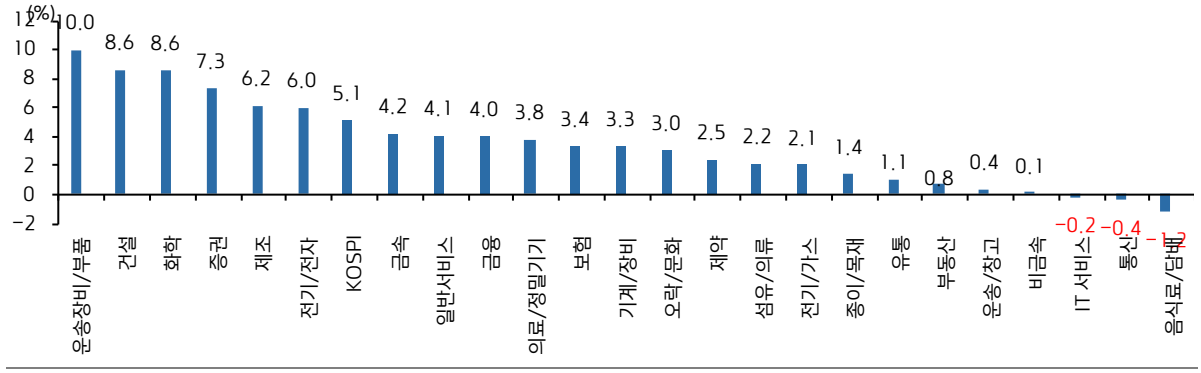
다만,10월 이후 코스피가 16% 넘는 역대급 폭등세를 연출한 데에는 상기 주력 업종들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국내 증시 특성 상 실제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셀온 물량이 출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주가 노이즈를 만들어낼 소지.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월 FOMC, 주요국 정상회담, 미국 M7 실적도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주보다 상기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차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 될 것으로 예상.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3,941.59	2.5	5.1	13.5	64.3
대형주	4,062.87	2.7	5.5	15.5	70.1
중형주	3,729.36	1.5	3.7	3.1	40.3
소형주	2,484.09	0.4	1.5	0.2	18.6
코스피 200	550.01	2.5	4.7	14.5	73.1
코스닥	883.08	1.3	2.7	2.6	30.2
대형주	2,147.94	1.8	3.6	4.2	33.1
중형주	823.19	1.3	2.4	3.2	39.6
소형주	2,603.16	0.4	1.4	-0.8	16.9
코스닥 150	1,500.23	1.7	3.8	4.2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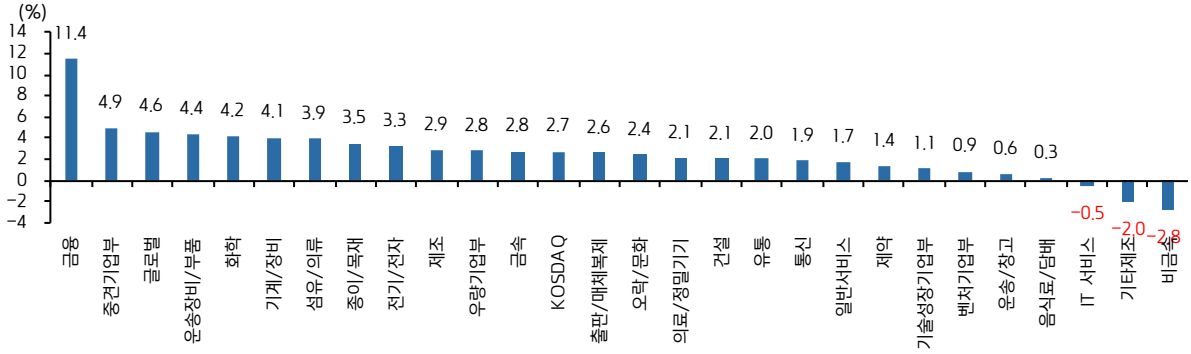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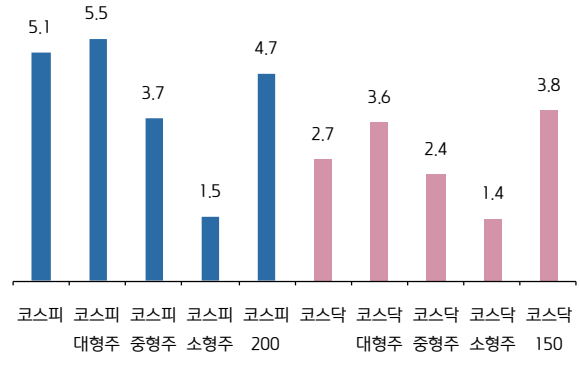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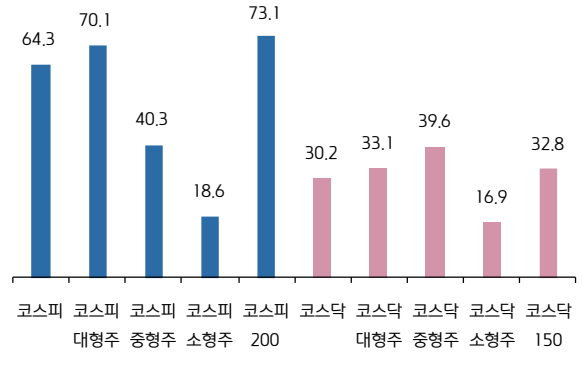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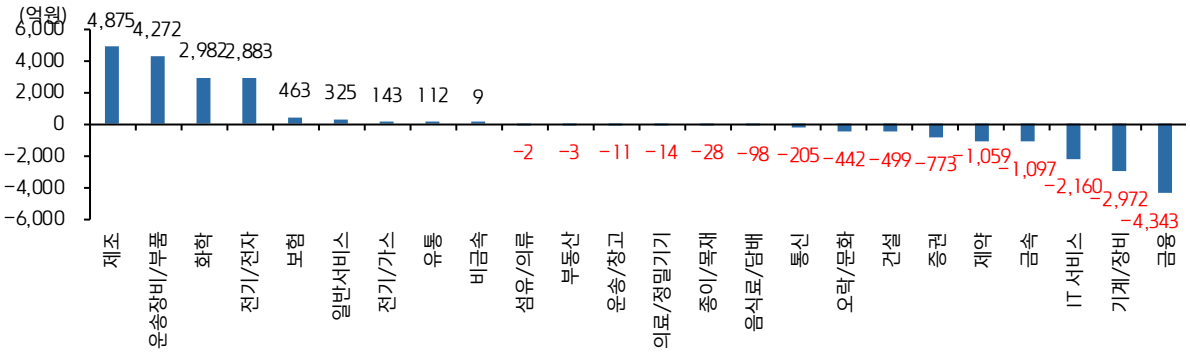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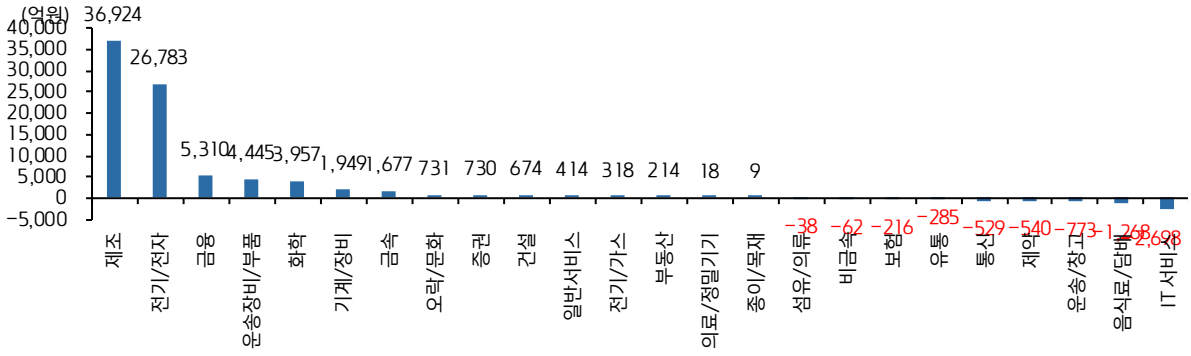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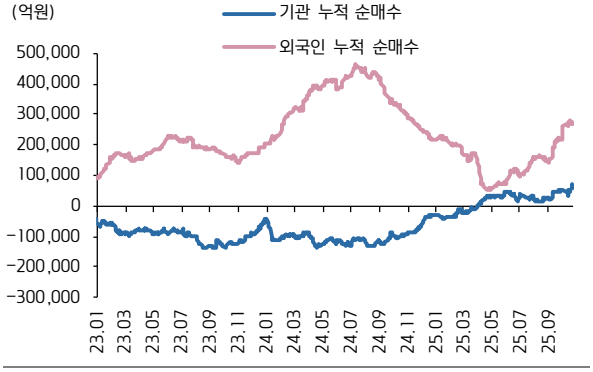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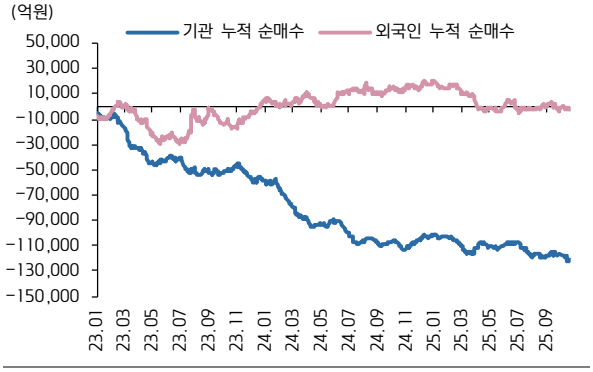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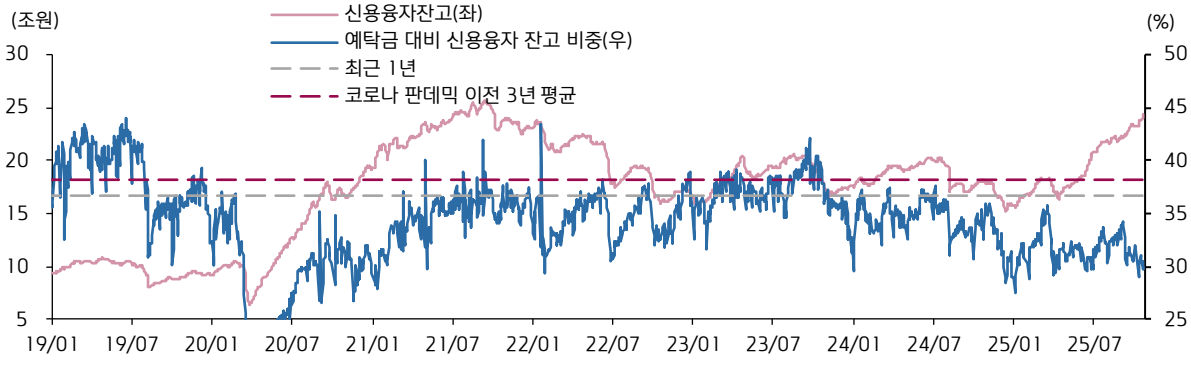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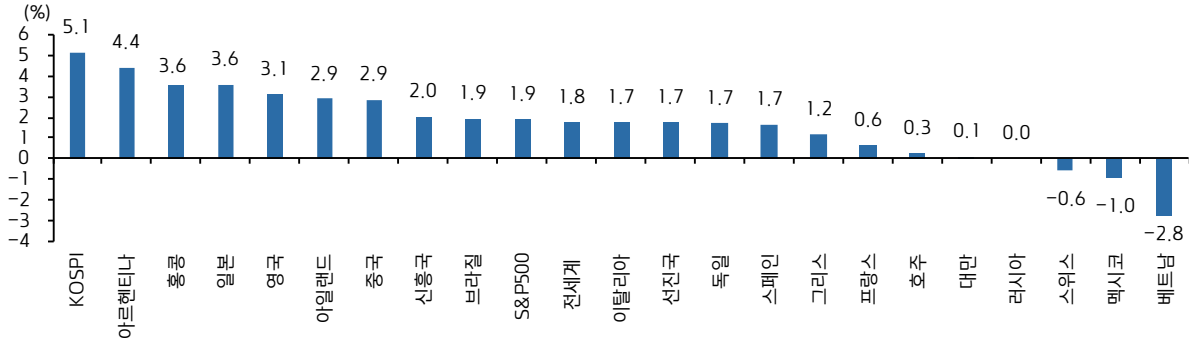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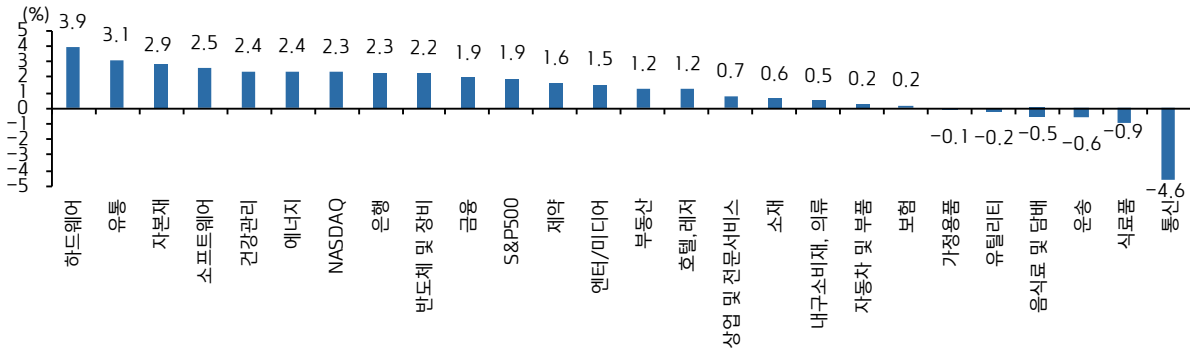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